

winter 2019 / spring 2020 — vol.10

동행

Special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얼마 전 우울감을 겪으며 알게 되었다.
행복이란 얼마큼 행복한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라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는 것을.

- 임경선 에세이 '자유로울 것' 중에서

Contents

winter 2019 / spring 2020 — vol.10



Story

02
힐링에세이
너에게 하고 싶은 말

08
힐링로드
뜨겁고 찬란한
강릉 겨울 바다

18
힐링&무비
선순환의 기적!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2
힐링라이프
기억 속의 멜로디

With U

24
#범죄피해자 선순환
나눔이 낳은 나눔
범죄피해자 선순환

26
전문가 칼럼
기부가 늘어나면
정말 더 행복한 세상이 될까?

30
피해자 수기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32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희망의 새날을 여는 특별한 동행

40
나눔 플러스
한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환경 개선에 참여

4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영상
공감, 그리고 동행

News

44
연합회 뉴스
센터 뉴스
감사 편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보

통권 10호(비매품)
발행일 2020. 1. 31.
발행인 김갑식
발행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디자인 (주)알비티 02.512.3747
인쇄 서진문화인쇄사 02.2274.1439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ORY 힐링에세이

너 에 게

하고
싶은 말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 정호승 '꽃을 보려면' 중에서

새해, 새날。
있고 있던 글을 꺼내 마음을 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당신에게 고이 닿기를 바라면서.

write 최다솜(자유기고가) photograph 최다솜, shutterstock



가만히 응시하니 모든 돌이 보석이였다
 모래알도 모두가 보석이였다
 반쯤 투명한 것도 불투명한 것도 있었지만
 빛깔도 미묘했고 그 형태도 하나하나가 완벽이였다
 모두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보석들이였다
 - 성찬경 '보석밭' 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외로움으로 인해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고
 우울한 내 모습을 보며
 새로운 날을 계획할 수도 있으니까.

다만, 너무 외롭지 말기를
 스스로 대견해하기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 전승환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갑작스런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어두운 상상력으로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두려움은 피로와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몸을 단련하되,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부끄럽고 힘들고 깨어진 꿈들 속에서도
세상은 아직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부디,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막스 에르만 '하루를 위한 잠언' 중에서





STORY 힐링로드

Winter



뜨겁고 찬란한 강릉 겨울 바다

강릉의 바다 앞에 섰다. 파도는 마지막 겨울을 끌어안으며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 바람의 한가운데서 이 겨울의 끝자락을 가슴에 담았다.

edit 최다솜(자유기고가) cooperate 한국관광공사

Sea



1

바다 건너에 감춰둔 시간 헌화로·바다부채길

이 계절, 이토록 진한 겨울의 향취는 강릉 어디를 가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을 좀 더 파고들기에는 심곡항만한 곳이 없다. 강릉 시내에서 동해 방면으로 차를 타고 30분쯤 달려 만나는 심곡항은 이름처럼 깊은 골짜기(深谷) 안에 들어앉은 자그마한 어촌이다. 고개 너머 번잡한 정동진과 달리 소박하고 정겨운 마을을 함께 품고 있어 안락한 느낌이 든다.

심곡항의 가장 큰 매력은 양옆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바닷길이다. 항구를 기점으로 오른쪽에는 헌화로가, 왼쪽으로는 바다부채길 이 펼쳐진다.

헌화로는 심곡항과 금진항을 잇는 해안도로다. ‘꽃을 바친다’는 뜻의 낭만적인 이름은 신라 향가 ‘헌화가’에서 가져왔다. ‘헌화가’는 한 노인이 아름다운 수로 부인을 위해 벼랑에 핀 꽃을 꺾어 바치며 읊었던 노래다.

기암절벽과 바다 사이에 조성된 길은 2km 남짓 이어진다. 바다와 워낙 가까워 도로 안으로 바닷물이 들이치기도 하고, 파도가 거친 날이면 안전을 위해 통제되기도 한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와 바람, 바위가 서로를 의지하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는다. 바람이 살랑거리면 살랑거리는 대로, 파도가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대로 한데 어우러지며 눈부신 해안 절경을 쏟아낸다.





심곡항 왼편으로 속살을 숨긴 바다부채길은 해안단구와 기암괴석의 비경을 만나는 산책로다. 해안단구는 바닷속에 있던 땅이 상승해 계단 형태로 만들어진 지형을 말한다. 2300만년 전 한반도 지각변동의 비밀을 엿볼 수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동안 군 경계근무 경찰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으나, 2016년 10월 '바다부채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반세기 만에 빗장을 풀었다.

길은 심곡항에서 정동진 썬크루즈리조트 주차장까지 약 3km 해안을 따라 이어진다. 바다에 바짝 붙어 협곡 사이를 오르내리는 탐방로가 세상과 절연한 듯 아득하다. 걷는 내내 동해의 거친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바위를 휘감고, 들고 나면서 크고 작은 파도가 넘실대는데 에메랄드빛 바닷속이 흰하다.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인 기암괴석엔 억겁의 세월이 새겨져 있다.

바다부채길 최고 절경으로는 부채바위와 투구바위를 꼽는다. 심곡항을 출발해 1km쯤 걸으면 부채바위다. 바다로 툭 튀어나온 모습이 넓게 편 부채를 닮아 멀리서도 금세 알아챌 수 있다. 투구바위는 투구를 쓴 장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이 발가락 여섯인 호랑이를 백두산으로 쫓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2

누구나 마음 안에 저마다의 바다가 있다 주문진

최근 강릉에서 가장 유명해진 장소가 있다면 주문진 영진 해변 방사제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신(공유)과 지은탁(김고은)이 메밀꽃을 주고받은 장소로 등장했다.

방사제는 해안가 모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독이다. 항구를 둘러 설치하는 방파제와 달리 바다 방향으로 길게 돌출되어 뻗어 있다. 마치 파도를 배경으로 한 단독 무대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진해변에서 주문진항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모두 다섯 개의 크고 작은 방사제가 있다. 이 중에 촬영 무대가 된 곳은 아래서 두 번째 방사제다. '도깨비'는 끝난 지 한참이지만, 드라마의 여운을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3

온기가 머무는 자리 안목 해변

겨울을 헤치고 찾아간 강릉은 어딜 가나 따뜻한 커피 한잔을 건넨다. 강릉에서 마시는 커피는 원산지나 로스팅 정도, 추출방식 외에도 어떤 날, 어떤 풍경인가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남긴다. 강릉에서 커피 향기가 가장 진하게 풍기는 곳은 안목해변이다. 강릉항(안목항)부터 해안을 따라 서른 곳 가까운 커피전문점이 들어섰다. 한때 이곳은 길거리 카페라고 불리던 커피자판기도 수십 대에 달했다. 그 시절 안목해변의 자판기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자판기마다 그 맛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해변을 빼곡하게 채운 커피전문점에 밀려나 몇 대 남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자판기 주인들이 나름 바리스타를 자처할 정도로 커피 맛에 애착이 강했다. 안목해변의 커피전문점들은 대부분 2층 야외 테라스를 갖췄다. 덕분에 머무는 내내 두 눈 가득 바다를 담기에 좋다. 다만 많이 알려진 만큼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카페에서 커피 한잔 사 들고 나와 겨울 바다 앞에 서는 순간,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 따끈한 커피를 만지작거리면서 쫓길 것 없이 걷는 시간이 그 어떤 위로보다 마음을 쓰다듬는다.

좀 더 한적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사천항에서 영진항을 거쳐 주문진으로 이어지는 해변 쪽이 낫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아담한 카페나 솔솔 너머 숨어 있는 조용한 카페들이 제법 눈에 띈다. 다만 커피 맛으로 소문난 '보헤미안'과 '테라로사'를 찾는다면 어느 정도의 대기시간은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 덜 붐비는 지점은 '테라로사 사천'과 '보헤미안 영진'이다. 테라로사 사천점은 사천해변 가기 직전 우거진 소나무 숲 안에 자리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보헤미안 영진은 보헤미안 커피가 처음 강릉에 자리 잡은 곳이다.



주문진에서 영진해변만큼 꾸준히 사랑받는 곳은 주문진항이다. 주문진(注文津)은 그 이름부터 '생선 주문하는 나루'란 뜻으로, 예나 지금이나 동해에서 잡아 올린 온갖 해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한다.

주문진 수산시장은 어선이 부려놓은 생선들로 가득하다. 이맘때는 겨울 바다가 녹아든 복어가 지천이다. 항구마을 특유의 냄새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 오가는 소리 등이 엉켜 꽤 떠들썩하다. 오징어잡이로 유명한 만큼 건어물 가게 역시 분주하다. 멸치, 문어, 양미리 등 말릴 수 있는 것들은 죄다 말려 내놓는다. 가게 옆 건조대에서는 배가 갈린 물고기들이 꾸덕꾸덕 말라간다.

주문진항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소돌 아들바위공원이다. 한 노부부가 백일기도를 올리고 아들을 얻었다는 아들바위를 비롯해 기이한 바위들이 해안을 따라 줄줄이 널려 있다. 어떤 건 밀가루 반죽을 거칠게 헤집어 놓은 것 같고, 어떤 건 마구 구기고 찢어버린 종잇장처럼 생겼다. 바다를 뚫고 솟아오른 바위가 동해의 거친 파도를 맞아 생성된 풍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신기하고도 묘하다. 공원 입구에서 전망대까지 탐방로가 이어져 느릿느릿 산책하듯 둘러볼 수 있다. 전망대에 서면 주문진해변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작은 바위산에서 굽어보는 풍경치고는 꽤 장쾌하다.

HEALING MOVIES

with



‘영화로 보는 우리’는 영화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상처들을 마주하고, 치유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write 방미나(나우심리상담센터 대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Pay It Forward)

2001. 2. 17. 개봉

미국, 122분, 12세 이상 관람가

감독: 감독 미미레더

출연: 케빈 스페이시, 헬렌 헌트, 할리 조엘 오스먼트

선순환의 기적!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인질극이 벌어진 현장을 취재하러 간 기자는 범인이 들이받고 가버린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망연자실 한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노신사는 기자에게 고급 차를 내주고, 다음 날 손수 명의 이 전까지 해준다. 기자는 그가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어떻게 고급 차를 그냥 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가 내건 조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뿐이다. 이 조건은 얼마 전 자신의 딸이 천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진료 순서를 양보해주던 흑인 청년이 제시한 조건이었다고 한다. 기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단순한 명제라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다. 이야기의 발원지를 찾아 나선 기자는 라스베이거스 외곽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소년 ‘트래버’를 만난다.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는 운동처럼 번진 ‘도움 주기’가 공동체에 불어넣은 선순환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중학생 트래버를 중심으로 이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나가는 주인공 대부분이 피해자라는 점이다.

첫 번째 고리를 연결한 사회 선생님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2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는 사고 이후 선생님이 되었으나, 사람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가끔씩 학생들이 자신을 두고 수군거린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오래된 분노가 꿈틀거린다.

트래버의 엄마는 알코올중독자 엄마와 단절했지만 자신도 중독자가 되었다. 동반 음주자인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가했고,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트래버는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하는 일상을 견뎌야 했다. 폭력을 일삼던 아빠가 사라진 다음에는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일상이 악몽처럼 느껴진다. 엄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며 중독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집안 곳곳에 숨겨진 술병은 엄마의 의지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의 시작은 특별한 사회 속에서 시작된다. 선생님이 첫 수업시간에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숙제를 내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루하고 어렵고 짜증난다며 투덜거린다. 그러나 숙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트래버는 '도움 주기 운동'이라는 아이디어를 낸다. 도움이 필요한 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도움받은 사람은 다시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많

매사추세츠대학교 심리학과 제노프 벌먼 교수는 개인이 심각한 외상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면 삶의 가치나 목표, 신념 체계 등 인생 전반이 뿌리째 뒤흔들리면서 엄청난 감정적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된다고 했다. 이 상태는 세상에 대한 호의성(benevolenc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의미감(meaningfulness of the world), 자신에 대한 가치감(worthiness of the self) 등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빚대어 보면 폭력이나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공동체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시도'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트래버'가 존재한다.
그들은 자원봉사나 기금후원을 통해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고, 어쩌면 세상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나름의 공식이었다. 반 친구들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야유를 던지지만, 트래버가 시작한 선순환 릴레이는 바이러스처럼 도시 전역을 감염시킨다. 트래버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노숙자는 엄마의 고장 난 트럭을 고쳐주고, 할머니에게 도움받은 불량 청년은 자기보다 더 위급한 환자에게 치료 순서를 양보한다. 딸을 살리게 된 아버지는 인질범이 부순 자동차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기자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내준다. 마침내 기자는 트래버를 만났고, 소녀의 인터뷰는 전국에 송출된다.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죠. 자신한테 지는 거예요. 계획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전거를 고치는 것보다 중요해요. 사람을 고치는 거죠.' 트래버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실제로 변할지 알고 싶었다며 '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인류가 축적해 온 지혜와 종교, 문학 등을 통해 내면 깊이 감춰진 특수한 지성이 삶의 위기나 시련을 거름 삼아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해왔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소년의 '시도'처럼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용기를 내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트래버'가 존재한다. 그들은 자원봉사나 기금후원을 통해 피해자 또는 생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선순환'은 상호 간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상승효과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영화의 원제인 'Pay It Forward'도 오늘 상처 입은 한 사람의 회복을 돕는 일이 미래를 위해 미리 지불하는 변화의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STORY 힐링라이프

기억 속의 멜로디

Musical

어떤 음악은 한 구절만 들어도 특정한 날의 냄새까지 상기시킨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영화음악을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두 편을 소개한다.

write 최다솜(자유기고가) cooperate 빅픽처프리덕션, 로네프

뮤지컬 영웅본색

무대에서 되살아난 홍콩 누와르의 전설

긴 바바리코트를 걸치고 성냥개비를 입에 문 쓸쓸한 주윤발과 전화 부스 안에서 피를 흘리며 수화기를 들고 있는 장국영. 지금도 잊히지 않는 홍콩 영화 '영웅본색'이 뮤지컬로 돌아왔다. 라이선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영화제작사에 접촉해 직접 만든 창작 초연이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벤허'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왕용범 연출과 이성준 음악감독이 의기투합했다.

뮤지컬 '영웅본색'은 총 4편의 영화 시리즈 가운데 1·2편을 엮어 재구성했다. 주윤발이 위조지폐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장면부터 술집에서 쌍권총을 쏘아대는 장면까지 '시대의 아이콘'이라 할 만한 명장면들이 곳곳에 배치됐다.

귀에 익은 영화주제곡도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한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는 모두 23곡으로 영화에서 9곡을 가져와 번안했고, 14곡은 창작했다. 특히 세기의 명곡으로 꼽

히는 '당년정'과 '분향미래일자'는 원곡의 향수와 감수성을 해치지 않는 편곡을 통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전한다.

무대장치 역시 영화의 템포를 살리기 위해 공을 들였다. 화려한 세트 대신 무대 삼면을 LED 패널 1000여 장으로 채우고 배우의 동선과 시점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영상을 펼쳐 보인다. 덕분에 무대는 홍콩의 밤거리부터 위조지폐 작업장, 교도소, 부둣가까지 수십 가지 공간으로 변모하며 원작의 장면을 '영화보다 더 영화같이' 재현한다.

기간 2020년 3월 22일까지 장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72길 60 한전아트센터
문의 클립서비스 1577-3363



뮤지컬 보디가드

별이 된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들

뮤지컬 '보디가드'는 스토키의 위협을 받는 팝스타와 보디가드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보디가드'를 원작으로 한다. 2012년 12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됐으며, 한국에선 2016년 아시아 최초 공연에 이은 재연이다.

'보디가드'의 백미는 역시 음악이다. '올 앳 원스(All at once)', '그 레이티스트 러브 오브 올(Greatest love of all)', '아이 해브 낫싱(I have nothing)', '런 투 유(Run to you)', '세이빙 올 마이 러브(Saving all my love)' 등 당대 팝 차트를 휩쓴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들을 고스란히 모았다. 특히 '앤드 아이(And I~)'로 시작하는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I Will Always Love You)'의 익숙한 후렴구가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휴스턴이 연기했던 '레이철 마론'에는 김선영, 해나, 손승연이 캐스팅됐다. 모두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영화에 삽입된 15곡을 무대 위에 쏟아낸다. 케빈 코스트너가 맡았던 보디가드 '프랭크 파머'는 이동건과 강경준이 각각 연기한다. 두 배우 모두 첫 뮤지컬 도전이다.

극 중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는 '니키 마론'이다. 노래에 재능 있지만 동생 그늘에 가린 삶을 사는 역할로, 최현선, 정다희가 출연해 레이철 못지않은 존재감을 뽐낸다.

기간 2020년 2월 23일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LG아트센터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나눔이 낳은 나눔 범죄피해자 선순환

일반적인 선순환의 사전적 의미는 순환이 잘되거나, 또는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을 말한다.
개인들이 선(善)을 실천하고 나아가 이것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 원리가 되고,
이 원리에 입각하여 인간사회가 물 흐르듯 순환(循環)된다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다.
선순환이 일상화되면 이것은 구성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긍정적 동기 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각자가 지닌 힘 이상의 효과를 창출해낼 것이며 이것은 더욱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핵심이며 요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범죄피해자의 선순환이란
피해자가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를 치유·극복하면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나눔의 선순환이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피해자를 돕고, 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돕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이런 좋은 상황이 사회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범죄피해자의 선순환이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이고, 우리가 나아갈 우리 사회의 미래일 것이다.



또 다른 나눔을 낳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사업



기부가 늘어나면 정말 더 행복한 세상이 될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 도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모여 긴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있다.
그 안에서 스무 해를 보낸 나에게
가장 큰 의미이자 성과였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 한다.

write 오은화(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 본부장)



‘왜 일 년 내내 나눔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고

연말연시에만 이슈가 되는 걸까’

지난 연말, 지면과 온라인에 기부와 나눔에 관한 다양한 기사가 등장했다. 몇몇 NGO에서 모금캠페인에 모델이나 대역을 쓴 것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고, 젊은 여생을 질병으로 마감한 분의 가슴 먹먹한 유산 기부 이야기도 보였다. 또 수많은 유명 인사와 아이돌 팬클럽의 훈훈한 후원 소식도 들려왔다. 겨울은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나눔 이야기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기다. 대부분의 NGO 기관들이 이 시기에 모금액도 커지고, 수혜가정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모금 활동을 하면서 ‘왜 일 년 내내 나눔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고 연말연시에만 이슈가 되는 걸까’ ‘매달 계절마다 새롭게 이슈를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해왔다. 그래도 이런 특별한 시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이고, 그 와중에 생활 속 기부 문화가 자리를 잡아간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올해로 사회복지 필드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흘렀다. 전반기 7년 정도는 사회복지사로 지역복지관에서 수혜자들을 대면 상담하며 필요한 자원을 지원했고, 이후 13년간은 기업, 개인, 단체,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협업하여 모금활동과 마케팅 활동에 전념했다.

그 과정에서 수혜 가정의 보호자와 아이들, 대기업 회장이나 중소기업 사장, 노동조합, 봉사 동아리, 개인 고액 기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유한 사람을 고루 만난 셈이었다. 그러는 동안 물질적인 빈부가 정신적인 빈부와 정비례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다.

2000년 초반, 서울 시내 복지관에서 일하며 결식아동,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인근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사례 관리를 하는 가정이 300가정 정도였으니, 모든 사례에 대한 깊은 개입은 그렇다치고 빈번한 가정방문 한 번 가기도 힘들었다. 그러던 중 한 기업에 보낸 프로그램 제안서가 받아들여졌고,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대부분 초등학생이었다. 대개는 저소득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아들이었는데, 그중에는 진이(가명)라는 친구도 있었다.

진이네 집은 엄마와 진이, 그리고 두 동생까지 모두 네 식구였다. 음주와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는 가출하셨고, 진이 엄마는 홀로 자녀 셋을 키워야만 했다.

진이는 늘 동생들을 데리고 복지관에 왔다. 엄마는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느라 항상 몸이 아팠고, 퇴근이 늦는 날도 많았다. 말이 별로 없는 진이는 학습지도, 문화 활동, 캠프,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잘 따라주었고, 언제나 동생들을 챙겨 잘 참여했다. 간식이나 밀반찬 등이 생기면 동생 먼저 챙겨주고, 집에 가져갈 것도 따로 챙기곤 했다.



‘훗날 어엿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진이처럼 알게 된 학생들은 모두 20명 내외. 복지관을 집처럼 드나들며 거의 매일 만나다보니 서로 무척 친해졌다. 학원에 가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게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함께 줄넘기를 하고, 숙제를 하고, 공연을 보러 가고, 수영장에 가고, 캠프를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오다가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면서 재단 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되었고,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그 후 13년 넘게 모금 마케팅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의 시간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들은 모금을 요청하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었고, 왜 후원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했다. 후원자에게 수혜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시키고, 둘 모두에게 이로운 모금방법을 떠올리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물론 진이에게도 연락이 왔다. 진이는 벌써 대학생이 되어 지방의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으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졸업하고 취업하면 나를 찾아오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금은 타 NGO기관을 통해 해외 자원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젠가 꼭 아프리카로 자원봉사를 나가 그곳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지내던 그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뭘 주려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얘기했다.

내 마음만큼이나 잘 자라준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고 감사했다. 지난날의 내가 지금의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을까 되돌아보며 부끄러워했다.

우리 재단은 70년 넘게 아동복지사업을 해오고 있다. 재단을 통해 지원 받은 수혜아동이 40만 명이 넘는다. 그만큼 많은 성장 미담이 있지만, 진이처럼 그때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서운함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다. ‘후원을 받는 동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아닐까?’ ‘재단에 불편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다.

몇 년 전 재단에서는 우리 기관을 통해 지원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려서의 가난이 학습이나 진학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성인이 되어 직장을 구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의 후원은 당시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미래의 삶을 꾸려나가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당장 맞닥뜨린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훗날 어엿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복지 현장에서는 반갑고 귀한 인연이 맺어진다. 진이처럼 힘든 일을 헤치고 알차게 다져진 씨앗들이 10년, 20년 이 지나 어른 나무가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WITH U 피해자 수기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희망수기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write 김민주(서울서부센터 지원 피해자)



“저 좀 도와주세요!” 이 한 마디가 왜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
저는 중학교 때 아바라는 사람에게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빠의 계속되는 폭행으로 집을 나간 엄마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지체장애인 남동생과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의 기분 변화에 따라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네가 외로운 아빠를 이해해야 한다”는 황당한
설득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른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그간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귀지 못한 것이
무척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자긋자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최선을 다해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교육을 받으며 아빠가 그간
나에게 저질렀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 저는 여러 상담소와
센터를 찾아다니며 하소연했지만, 그때마다 “부모를 처벌하는
건 쉽지 않다”는 일관된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만큼은 제 안에 꽂꽂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괴로운 감정이 한꺼번에

복받쳐 오를 때마다 무작정 찾아가 울고, 어렵게 재회한 엄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조언도 구했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은 상처 많은 고등학생 소녀를 아기 다루듯 안아주셨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문제집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걷기대회나 음악회에 초대해 소소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셨습니다. 또 명절이면 집으로 찾아와 선물을 전해주시고, 연말에는 ‘파랑새의 밤’ 행사에 초대해
한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셨습니다.
예전의 저희 가족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해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지원센터 선생님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4년제 간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3년째 간호사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지만, 붕어빵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센터 피해자에게
기부하고 계십니다. 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도 조금씩 저축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자”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라며 무척 기뻐하십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합당한 벌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고통을 나누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오래오래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센터의 도움으로 좌절을 극복한 이들의 마음까지 더해진다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센터 선생님들께 마음을 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받은 만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피해의 아픔을 딛고 희망의 새날을 여는
아름다운 이야기



뜻하지 않은 범죄로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새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고양파주센터

피해자는 두 자녀와 함께 개별 심리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프로그램 종결 후 자조모임, 체험 활동 등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 참가자 피해 회복을 위해 센터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설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

친아버지(피의자)가 아내(피해자)와 두 자녀를 10년에 걸쳐 상습·지속적으로 폭행
피해자의 자녀가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의심 증상을 보임
가정의 수입원이던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 가중

센터 지원 내역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심리상담 30회, 학자금, 치유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13회, 물품 등 지원

인천센터

피해자 사망 당시 유족은 살인사건인줄 모르고 생활하다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범죄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내용을 들은 수감자가 출소 후 검찰에
제보하여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센터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공판 모니터링, 센터 행사 참여 등
센터 자원 봉사활동에 3년 넘게 참여하였습니다. (KBS 뉴스 보도)

피해 내용

조합업무 분쟁 관련으로 공모한 두 명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돌멩이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사건 당시 빌라 지하방에서 딸과 함께 살던 피해자 아내는 남편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10년 넘게 지하방에서 생활

센터 지원 내역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심리상담 30회, 학자금, 치유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13회, 물품 등 지원



성남광주하남센터

센터 지원을 계기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애국가를 선창하기도 하며 이후 생활의 방향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피해 내용

만취 상태였던 피의자가 유리병이 들어 있던 쓰레기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는 2년 넘게 치료 중 성악을 전공하고 프리랜서로 학생을 지도하던 피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경제활동 중단.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유지

센터 지원 내역

심리치료 20회, 치료비 13회, 생계비 6회 지원

안양센터

센터에서 운영 중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힐링팜 주말농장’에 피해자 남편이 적극 참여하였고 농작물 파종, 햇고구마 수확, 농작물 돌보기, 김장 등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모범을 보였습니다. 힐링팜에서 수확한 농산물 등을 다른 피해자에게 직접 나누어 주며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

피해자 본인이 운영하던 점포에서 손님에 의해 폭행당한 후 목이 졸려 사망. 피의자는 중국으로 도주

센터 지원 내역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학자금 및 직업훈련 지원

속초센터

센터는 속초시와 협력해 긴급생계비 지원 조치하였으며 또한 주민센터와 연계해 월세 50% 감면 및 세탁기 등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힐링캠프를 통해 빠른 치유와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센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피해 내용

별거 중이던 피의자가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밀어 넣고 조수석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손에 골절상을 입힘 피해자는 피의자를 피해 두 자녀와 함께 주거지를 옮겼고 심신미약으로 경제활동 중단

센터 지원 내역

생계비, 치료비 및 힐링캠프 참여 지원



영월센터

화상 외과수술 및 피부이식 수술이 계속되는 중에도 사건 발생 전 취미생활로 시작한 캘리그래피 작품을 완성하여 센터에 기증하는 등 인내력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

부부싸움 중 피의자(남편)가 휘발유를 들고 와 협박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고, 아내에게 불이 번져 얼굴과 전신에 2도 화상 피해를 입힘. 사건 이후 피의자는 음독자살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노모와 함께 반지하방에서 생활 중

센터 지원 내역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서산센터

피해자의 부모님이 센터를 방문하여 그간의 관심과 지원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더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400만원 기부하였습니다.

피해 내용

피해자는 친구인 피의자와 말다툼 중 폭행을 당했으며,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피해자의 아버지는 생업(요식업)을 유지하고 어머니는 피해자 재활치료 간병에 몰두함

센터 지원 내역

치료비 지원

청주센터

피해자는 센터의 다양한 도움으로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쿨트테라피에 참여하여 배우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하였으며,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자신이 겪은 일을 사고로 여기고 회복을 위해 천천히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 내용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으로 유인한 후 음료수에 수면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성폭행 시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는 자녀 4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센터 지원 내역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및 푸드테라피, 쿨트테라피 등의 프로그램 지원

경주센터

자궁경부암 수술로 노동력이 없는 피해자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 사망 후 중학생, 초등학생 세 자녀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사정에 처했습니다. 센터는 피해자 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및 타 기관 추천을 통한 장학금 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세자녀가 간호사, 금융기관, 공무원시험 준비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차녀는 근무하는 농협에서 피해자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피해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피해 내용

피해자는 경주 감포읍 노상에서 이웃 주민과 사소한 말다툼 중에 피의자로부터 배를 차이고 밧혀 사망

센터 지원 내역

유족에게 생계비 16회, 학자금 4회, 주거환경 개선, 물품 등을 지원

포항센터

택시에 혼자 타거나 혼자 다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 피해자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해당 피해자의 위급 상황 발생 시 본인의 택시로 수송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손님으로 가장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 위협에서 탈출
피해자는 이혼 후 택시운전을 하며 딸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사건 이후 두려움으로 생업에 지장이 많아 수입이 현저히 줄면서 생활고를 겪음

센터 지원 내역

생계비 2회, 학자금, 농장체험 4회, 생필품 및 법률 지원



의성군위청송센터

센터의 다각적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은 피해자 자녀가 센터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2017년 9월부터 월 5만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다른 방화치상 피해자도 100만원을 기부하여 훈훈한 미담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

청송군 현동면 마을회관에서 주민 5명이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나눠 마신 후 2명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1명 사망. 소주병에서 독극물 검출
피의자로 추정된 대상자는 경찰 수사 중 농약으로 음독자살 하였고, 피해자의 처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곳에서 거주

센터 지원 내역

주거이전비, 장례비, 방법 CCTV 설치, 긴급생계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포항센터 연계) 지원

울산센터

취업지원비로 뷰티아카데미 수강, 필기시험을 합격하였으며 센터의 잦은 안부전화와 가정 방문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였고, 2019년 1월 결혼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 공연 관람 등 센터 자조모임에 적극 참여하였고, 사회복귀 의지가 강하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함.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워하며 심리 치료를 거부함

센터 지원 내역

치료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난방비 지원

경남센터

센터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평소 흥미가 있던 피아노까지 배우게 되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연합회와 센터에서 시행한 힐링 승마체험이 자신감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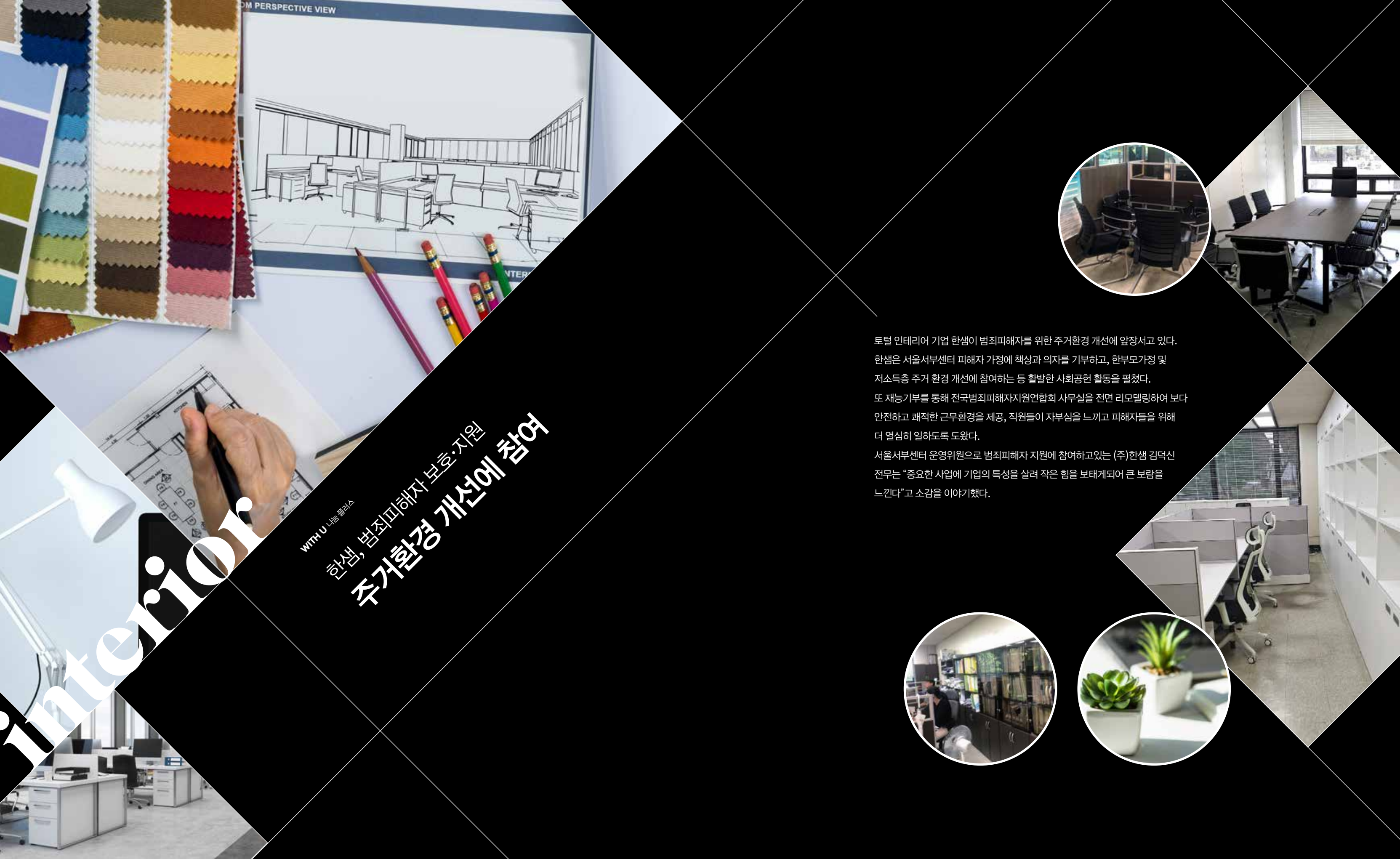
피해 내용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곳이 없어 고모와 거주 중, 고종사촌 오빠로부터 수년 동안 추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강요 받음
사건으로 인해 고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시설에 입소. 대학교 진학 이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아버지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용근로 중임

센터 지원 내역

장학금 지원





Interior

WITH U 나눔 플러스
한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

토털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샘은 서울서부센터 피해자 가정에 책상과 의자를 기부하고,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또 재능기부를 통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무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피해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도왔다.
서울서부센터 운영위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참여하고있는 (주)한샘 김덕신
전무는 “중요한 사업에 기업의 특성을 살려 작은 힘을 보태게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영상 공감 그리고 동행



지난해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선보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영상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공감'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동행'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1

그저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바다 앞에서 그간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봅니다.



#2

치유의 숲을 오손도손 함께 걸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 따뜻한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3

구성진 노래 한 소절에
시름을 잊고 다시 한 번 희망을
향해 힘차게 노래합니다.



#4

'천사의 언어'라는 찬사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아봅니다.



#5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의 바리스타 교육은
자격증 취득, 일자리 지원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줍니다.



#6

우리 앞에 놓인 매일의 삶도 커피 내음처럼 향기롭고
따뜻하기를 소망합니다.



#7

농약소주 사건으로 뒤숭숭했던 마을은 센터의
도움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고, 가을철 수확만큼
풍성한 마음의 결실도 얻었습니다.



#8

나의 아픔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도우며 맘 흘린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활동 소식

KCVA news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지난 11월 27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갑식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센터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공감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종사자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오프닝 강연 '함께 걸어가는 길'을 시작으로 피해자 수기 낭독, 무용극 '파랑새의 꿈' 등 모든 순서에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또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이자 진주센터 홍보대사인 배우 김상중이 무대에 올라 범죄 피해와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센터 홍보 영상 및 센터별 주요 활동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9 하반기 전국 사무처장 회의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8월 20일 하반기 전국 센터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센터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개선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피해자 접점기관으로서 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경찰청 담당자가 참석,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건넸다.

연합회는 하나금융그룹, 에스원과의 사업 추진, 종사자 전문화 교육, 연감 발간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센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웹어워드 코리아 2019 대상 수상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지난 12월 1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웹어워드 코리아 2019'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또 공공프로모션 분야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제6회 다량안심캠페인' 홈페이지를 출품해 수상했다. 다량안심캠페인 홈페이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EA)가 주최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비주얼디자인·UI디자인·기술·콘텐츠·마케팅·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 시상식이다. 지난 2004년 시작돼 올해 16회째를 맞이했다.

2019 정기 이사회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10월 3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9년도 주요 사업 실적과 신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갑식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중한 업무 속에서 피해자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는 전국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피해자 치유 미담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범죄피해자와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역별 사무처장 회의 개최

2019년도 하반기 권역별 사무처장 회의가 지난 11월 4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19년도 주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간병비 및 취업 지원 활성화 협조 요청 △하나금융그룹 후원 사업 △센터 15년 사백서 발간 등이 보고됐다.

이 밖에도 피해자지원시스템 정보 보안 및 기존 시스템의 보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소식

CENTER news



중앙센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펼쳐

중앙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충남 청양 칠갑산 자락에 자리한 한 울 김치 공장에서 범죄 피해자 가족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김장 나눔 행사에는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한 중앙센터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주은혜 검사, 한울 임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이날 담근 김치는 강력범죄피해자 100여 가정에 전달됐다.



서울남부센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

서울남부센터는 지난 11월 4일 서울남부지검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서울남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적 2,603건(피해 상담 2,035건, 경제적 지원 568건), 총 5억9300만원에 대해 보고하고, 2020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 구청의 보조금 증액, 실무 담당 공무원 및 구민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교육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센터 멘토와 함께 떠나는 희망나들이

서울동부센터는 지난 8월 17일 '제4회 희망나들이'를 개최했다. 범죄 피해자 가족의 자립 의지 함양과 정서 치유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센터 실무자 및 멘토 위원, 범죄 피해자 가족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곡항에서 정동진으로 이어지는 바다부채길을 걷고,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바다열차에 탑승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서울서부센터 피해자와 함께 '겨울나기 김장 나눔'

서울서부센터가 지난 11월 22일 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김장 나눔 행사는 서부센터가 매년 겨울 펼쳐온 봉사활동으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크다. 올해는 총 500kg의 김장김치가 60가정에 전달됐다.



서울북부센터 대리 외상 치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서울북부센터는 지난 11월 1일 센터 직원 및 상담위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대리 외상 치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북한산 우이산장 세미나하우스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문귀례 이사장을 비롯해 센터 상담위원으로 구성된 색소폰 동호회 등이 무대에 올라 가곡, 민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다.



인천센터 음악을 통한 치유와 성장 '어울림 음악회'

인천센터는 지난 10월 17일 엘림아트센터에서 '어울림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 80명을 비롯해 센터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초청됐다. 공연에는 가수 배일호, 소리새, 정가인 등과 클래식 연주단이 참여해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선사했다. 공연장 밖에는 피해자들이 심리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그림, 공예품 50여 점이 전시됐다.



고양파주센터 통합지원네트워크 협의체 발족

고양파주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지원네트워크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속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연 2회 전체 회의를 하고, 분기별로 실무 사례회의를 열어 다양한 협업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수원센터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 간담회 개최

수원센터는 지난 11월 수원지검 관계자 및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6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여주이천양평센터 클래식 음악회로 힐링 선물

여주이천양평센터는 지난 12월 4일 일성남한강콘도에서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회를 열어 힐링을 선물했다. 이날 공연에는 범죄 피해자 가족 54명과 여주지청장 및 담당검사, 센터 이사장 등 80명이 참석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였다.



평택안성센터

쿠키 만들기 자조모임 운영

평택안성센터는 범죄 피해의 아픔을 가진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긴장과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흥광명센터

‘희망무지개 힐링캠프’ 운영

안산시흥광명센터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 취옹예술관에서 ‘희망무지개 힐링캠프’를 열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힐링캠프는 손수건 천연 염색, 수목원 정원 관람, 인절미 만들기, 캠프파이어 등 심신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속초센터

범죄 피해자 가정 주거환경 개선

속초센터는 강원도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강제추행 피해자 가정에서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성군의 추천을 받아 속초준법지원센터 봉사자들과 함께 전개했다. 수혜 가정은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피해자를 포함한 여섯 자매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거여건 개선이 꼭 필요했다.



춘천센터

‘함께해요 우리!’ 힐링캠프 개최

춘천센터는 지난 8월 24일 강원도 인제 내린천에서 범죄 피해자 가족 12명과 센터 위원 28명이 함께 하는 래프팅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센터 위원과 한팀이 되어 힘차게 노를 젓고 거친 물살을 가르며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안양센터

직접 키운 농산물로 ‘사랑의 김치 나누기’

안양센터는 지난 11월 13일 힐링팜 주말농장에서 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유병두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문승현 이사장, 센터 피해자 자조모임 ‘울타리’ 회원 등 50여 명은 힐링팜에서 배추, 무, 갓 등을 수확해 직접 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220여 포기는 범죄 피해자 가정 20여 곳과 보호관찰대상자 10여 가구에 전달됐다.



성남광주하남센터

센터 종사자 대상 워크숍 개최

성남광주하남센터는 지난 10월 7일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일대에서 센터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센터 상담위원과 자원봉사위원들은 왕송호수 생태 습지와 생태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업무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센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운영

대전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취업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을 운영했다. 2015년 시작해 5회째를 맞는 바리스타 교육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매주 1회씩 우송대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센터는 바리스타 교육 지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카페사업단 우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홍성센터

김장김치 나눔 행사 개최

홍성센터는 지난 11월 12일 홍성지청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봉사자들은 범죄 피해자 가정에 전달할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그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담근 김치는 택배로 배달됐으며, 일부 몸이 불편한 피해자 가정에는 상담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강릉센터

강원·충북 합동 힐링캠프 개최

강릉센터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강원·충북권 합동 힐링캠프를 열었다. 춘천·원주·속초·영월·제천·충주·강릉 등 7개 센터에서 참여한 피해자 및 가족, 봉사자 61명은 바다열차 탑승, 컬링 체험, 치유의 숲 탐방 등을 통해 잠시나마 불안을 떨쳐내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챙겼다.



공주청양센터

6년을 이어온 ‘사랑의 김장 나눔’

공주청양센터는 11월 12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공주청양센터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은 2014년 시작되어 6년째다. 올해는 대전지검 공주지청, 공주청년회의소, 센터 직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해 김치 100박스(1000kg)를 100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는 공주 월송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직접 가꾸고 생산한 재료만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논산부여계룡센터

통합지원 공동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논산부여계룡센터는 지난 6월 12일 논산문화원에서 25개 협약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책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공동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아산센터

사랑의 김장으로 온정을 나눈다

천안아산센터가 범죄 피해자 가정을 위한 '김장 나눔'에 동참했다. 센터는 지난 11월 26일 유관순체육관 앞에서 지청간부, 직십 자봉사회원 등 70여 명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담긴 김치는 총 2300kg로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가정 100가구에 전달됐다.



서산센터

도비산 임도길 걷기 행사 열려

서산센터는 지난 10월 16일 '황금 물결 바라보며 힐링하는 도비산 임도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걷기 행사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센터 직원과의 신뢰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가을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피해자 가족, 센터 위원 등 90여 명이 참가해 자연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느꼈다.



청주센터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송년 음악회

청주센터는 지난 12월 3일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코냐힌 알렉산드로, 첼리스트 김해미, 피아니스트 이진옥 등이 초청되어 슈베르트 '세레나데', 파가니니 '칸타빌레', 한돌 '홀로아리랑' 등 12곡을 선사했다. 청주센터는 피해자의 정서 안정을 위한 음악회를 매년 열고 있다.



충주음성센터

범죄 피해 아동들의 특별한 외출

충주음성센터는 지난 7월 24일 범죄 피해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희망 나들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 아동들은 점심 식사를 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 또 영화 '라이온 킹'을 관람하며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찾았다.



영동옥천센터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

영동옥천센터는 지난 11월 19일 범죄 피해자 가정 21가구에 겨울이불과 쌀 20kg을 지원했다. 또 지원 가정 중 다섯 가구는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근황을 확인하는 등 사례 관리에 나섰다. 영동옥천센터는 피해자 가정의 빠른 치유와 안정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서부센터

범죄 피해 청소년 대상 멘토링 실시

대구서부센터는 2019년 총 10회에 걸쳐 범죄 피해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처를 입은 청소년과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학생을 멘티와 멘토로 연결하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했다. 멘티 청소년은 멘토 대학생과 함께 애견카페를 방문하거나 영화를 보고, 팔찌 만들기에 도전하는 등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성을 키웠다.



포항센터

무용동작 치유프로그램 실시

포항센터는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무용동작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피해자들은 긴밀한 유대 관계에 있는 센터 위원과 한조가 되어 한 달에 2회 무용동작 치유 프로그램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몸짓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현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했다.



제천단양센터

김장 나누기로 나눔 실천

제천단양센터는 지난 11월 13일 범죄 피해자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박혁수 지청장, 장창식 이사장을 비롯한 센터 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명성유유웨딩컨벤션에서 약 340kg의 김치를 담갔다. 김장 비용은 정창식 이사장과 센터 위원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정성껏 담긴 김치는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가정 20가구에 전달됐다.



김천구미센터

KT&G복지재단 차량지원공모사업 선정

김천구미센터는 지난 10월 21일 KT&G복지재단의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승용차를 지원받았다. KT&G복지재단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적정기관을 선정, 경승용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천구미센터는 기동력 있는 이동수단을 활용,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상주문경예천센터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캠페인 전개

상주문경예천센터는 지난 11월 16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센터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범죄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성군위청송센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의성군위청송센터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초빙된 메이크업 강사에게 화장법, 헤어연출법, 사회생활 기본 매너 등을 배우고 스스로 외모를 가꾸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센터

배우 김상중 홍보대사 위촉

진주센터는 지난 7월 2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배우 겸 방송인 김상중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상중은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12년째 진행하는 등 지지층이 두터워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거제고성센터

심리 퍼포먼스 무용극 '파랑새의 꿈' 공연

통영거제고성센터가 준비한 무용극 '파랑새의 꿈'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무대에 올라 큰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에는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과 상담위원 6명이 직접 출연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범죄 피해 이후 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치유의 과정을 춤사위로 표현,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울산센터

유관기관 지원 사례 나누기 좌담회

울산센터는 지난 11월 6일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나누기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울산지역 구·군청, 경찰서 등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2019년 주요 지원 사례를 발표, 공유했다.



영덕울진영양센터

대구지검 영덕지청 견학행사 진행

영덕울진영양센터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자원봉사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대구지검 영덕지청 견학행사를 실시했다. 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홍보하고 준법정신 고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밀양창녕센터

페이퍼 플라워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밀양창녕센터는 지난 10월 24일 피해자 자조모임 '꽃길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페이퍼 플라워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주름 종이로 자신만의 꽃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창합천함양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

거창합천함양센터는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4명의 범죄 피해자 가정에 55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과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 센터는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선정, 물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센터

심리 치유 힐링 승마체험 실시

경남센터는 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 7명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힐링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 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승마 기초과정을 수료하고 말들과 교감하며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마산함양의령센터

원에 치료 프로그램 진행

마산함양의령센터는 지난 10월 11일 관내 범죄 피해자 13명을 초청하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에게 주고 싶은 생화 바구니 만들기'를 주제로 원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꽃바구니를 만들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한 곡물 세트가 기념품으로 전달됐다.



광주전남센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광주전남센터는 지난 11월 7일 광주지검, 관내 13개 자치단체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남동부센터
거리 캠페인 전개

전남동부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관내 육교 3개소와 읍면동 게시판에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범죄 피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당신을 도와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한 달간 게시했다.



전주센터
범죄 피해자 가정 생필품 및 위로금 전달

전주센터는 추석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 가정 25 곳에 위문품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센터는 매년 명절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목포센터
관내 범죄 피해자 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목포센터는 지난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내 범죄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예정이다.



장흥강진센터
추석맞이 위문품 전달

장흥강진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6일 광주지검 장흥지청과 함께 물품 지원 사업을 펼쳤다. 센터는 관내 범죄 피해자 가정 30곳을 방문해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섰다.



해남완도진도센터
헬스투어 실시

해남완도진도센터는 지난 11월 12일 범죄 피해자와 센터 종사자를 위한 헬스투어를 실시했다. 순천만습지, 선암사 등 순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헬스투어에는 관내 피해자 가족과 센터 위원, 피해자 지원 관련 경찰관 등 36명이 참가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센터
정기총회 겸 연찬회 개최

제주센터는 지난 9월 19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조재연 제주지검 검사장과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법무 유관기관장, 범죄 피해자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센터는 강재업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모두 14명에게 총 2600만원 상당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마음으로 쓰는

편지

센터에 배달된 따뜻한 편지들. 펜으로 꺾꾹 눌러 쓴 그 마음들을 모았다.

경주센터에서 주최한 서라벌 힐링캠프에서 뜻깊은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주센터 이상춘 이사장님,
김정석 사무처장님! 참가자들을 한 명 한 명 살뜰하게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구·경북지역 9개 센터 직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잊지 못할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조정기일이 다가올수록 남편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삶을 옥죄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저는 마산·함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당일,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을 때, 선생님께서 재빨리 눈치채시고 얼음장이 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셨습니다.
불안감에 떨던 저를 다독여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모든 약자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마산·함안·의령센터

이혼하고 초등학교 아들과 살고 있던 딸이 범죄 피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이후 딸이 남기고 떠난 손자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데, 천안아산센터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여섯 차례 집단 상담에 참여했고, 이후 두 달에 한 번씩은
자조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아픔을 나누면서 시들어 가던
제 마음이 다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또 센터에서 전달해주신 성금 덕분에 병원에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를 잃고 저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열 살 손주를 위해서라도 빨리 기운 차리겠습니다.
늘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노정자 상담위원장님, 김경순 상담위원님, 사무처장님,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안아산센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아픔을 나누면서
시들어 가던 제 마음이 다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속초센터 정해상 사무처장님!
저는 양양 화재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참담한 사건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사무처장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던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와 아이들의 영혼위령제와, 천도재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참담한 처지의 유가족이 생긴다면 꼭
사무처장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센터

안산센터 직원 여러분, 저 같은 외국인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해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범인은 도망가고 가입해둔 보험도 없
어서 의료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무렵, 센터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아름답고 인자한 나라입니다.
외국인을 평등하게, 가족처럼 마음을 다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시흥·광명센터



저는 폭행을 당하여 죽을뻔 했다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폭행을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으니
급히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는 몸 회복보다
우선 치료비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병원에 직접 공문을 보내 피해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반신이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지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북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힘든 시간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희망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선생님들의 보살핌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 한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경북북부센터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이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곳이 있고 그 곳에 근무하시는 분께는 더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인사드려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난필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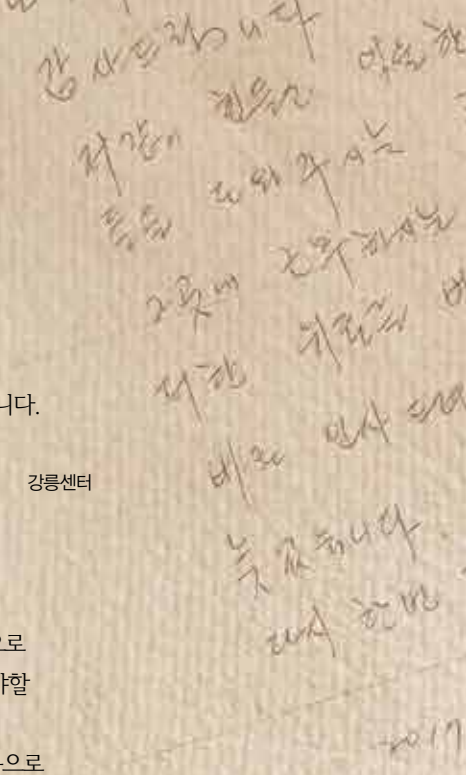
강릉센터

결혼 생활 16년 만에 아이들과 제가 홀로서기를 하려고 청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두려움에 밤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기에 한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던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할
아이들이 있기에 용기 내어 먼저 법적으로부터 자유로와 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2년이라는 법정 싸움 끝에 아이들의 호적과 개명 등이 정리되고, 센터의 도움으로
주거가 안정되어 갈 때, 둘째가 저에게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며 울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며
아이를 포기시키고 있을 때 쯤 센터에서 둘째에게 장학금을 주신다는 전화를 받고 정말인지 여러 번
되물어 보았지만 꿈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올해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둘째가 국립대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연습을 하며
여러 무대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주신 센터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면 더
열심히 연주해서 훌륭한 연주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인생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센터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질 못했는데 복을 타고 났는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답할 방법은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거라 생각합니다.
딸과 저는 건강이 좋아졌고 딸은 학교가 맘에 든다며 행복해합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희망카페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사람들의 배려로 지금까지
잘 지내올수 있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두려움에 떨었고, 지금도 모두 이겨내진 못했지만 응원해 주시고
용기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전남센터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96-1295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02-537-1295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448-1295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2644-1295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955-1295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07-1295

경기·인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73-1295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932-1295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2-875-1295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2-323-1295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211-1295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736-1295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85-1295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692-1295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405-1295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387-1295

강원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241-1295
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645-1295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744-1295
속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638-1295
영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375-1295

대전·충청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2-472-1295
홍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631-1295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858-1295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745-1295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660-4377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621-1295(천안) 041-533-6090(아산)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288-1295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856-1295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643-1295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744-1295

대구·경북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3-743-1295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3-573-1295
경북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857-1295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777-1295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255-1295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436-1295(김천) 054-462-9090(구미)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533-1295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833-1295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733-1295

부산·울산·경남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051-505-1295
부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781-1295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207-1295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2-260-1295(울산) 055-366-1295(양산)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62-1295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748-1301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648-1295
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356-1295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943-1295
마산·합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42-1295

광주·호남	
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2-223-1295
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282-1295
장흥·강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864-1295
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722-1295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537-1295
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277-1295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452-1295
정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534-1295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635-1295

제주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4-756-1295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강력범죄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피해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과 법률지원, 심리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갖고 웃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